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5. 12.(화)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친환경연구과장	고순보	☎ 760-7350
		업무담당자	고윤정	☎ 760-7352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마늘 표준시비로 비료 53% 저감...14일 현장 평가회 개최

- 5월 14일 대정읍 무릉리서 마늘 전용비료 활용 표준시비 실증 결과 공유 -
 - 농가 경영비 절감과 지하수 보전 등 화학비료 사용 저감 기술 확산 -

- 제주 서부지역 마늘 재배지에서 마늘 전용비료를 활용한 표준시비 실증 결과, 비료 사용량이 관행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은 이번 실증 결과를 공유하고 화학비료 사용 저감 기술 확산을 위해 오는 14일 대정읍 무릉리 실증시험 포장에서 ‘서부지역 마늘 표준시비 현장 평가회’ 를 개최한다.
 - 이번 평가회는 토양검정을 기반으로 한 표준시비 적용에 따른 △마늘 생육 상태 △구 비대 △수량 및 품질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, 현장 토론을 통해 개선 방안과 확대 적용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.
-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부터 ▲브로콜리 ▲양배추 ▲마늘 ▲양파 4개 작물을 대상으로 대정·한림·한경 지역 56개 마을 226개소에서 ‘서부지역 표준시비 도입 시범사업’ 을 추진하고 있다.
 - 이 가운데 30개소는 농가 관행 시비와 표준시비를 비교하는 실증시험을 병행해 비료 저감 효과와 생산성 유지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.



- 마늘 실증시험에는 서부지역 토양 양분 상태를 반영해 농업기술원이 개발하고, 지난해 제3종 복합비료로 공식 등록한 마늘 전용비료(질소 10%, 인산 5%, 칼리 3%)가 사용됐다.
- 현재까지 조사 결과, 표준시비 적용 시 10a당 비료 사용량은 관행 대비 53.2% 저감됐으며, 마늘 생육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
- 이는 생산성은 유지하면서 비료 사용량과 농가 경영비를 동시에 절감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, 지하수 보전 등 농업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고윤정 농업연구사는 “토양검정에 기반한 표준시비는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농업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핵심 기술”이라며 “지속적인 현장 실증과 평가를 통해 지역 맞춤형 시비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